

완도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열기 뜨겁다

방송인 등 유명인사 184명 홍보위원 위촉

국내 31개 기관·단체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

박람회 알리기 박차...입장권 사전예매율 30%

200일 앞으로 다가온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방송인 등 유명인사 184명을 홍보대사 및 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 31개 기관 및 단체와 박람회 성공개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박람회 국내외 알리기'에 성공하면서 입장권 사전예매율도 30%를 나타내는 등 성과도 내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 측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70만명 관람객 유치라는 목표를 손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주전사관인 주제관 공사는 현재 60%의 공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연출 및 회장 운영,

문화이벤트 세부실행 계획도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군민만이 아니라 30만 출향인들의 해조류박람회 기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군은 2014년을 '고향방문의 해'로 정하고 가족, 회사동료, 이웃들과 방문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도 24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6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해조류박람회 'D-200 성공 기원 군민 한마음대회'를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행사와 2부 한마음대회를 열었으며, 박람회추진사항 보고, 박람회지원 협약체결, 성공기원 메시지 상영 등의 순으로 열렸다.



지난 24일 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D-200 성공 기원 군민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대회 후 박람회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화해 완도발전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김종식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장도 "준비기간이 짧지만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철저히 준비하여 박람회 성공 개최로 완도군민의 자력을 보여주고 완도군 미래 번영의 계기로 만듭시다"고 당부했다.

슬로시티 청산도 홍보대사인 텔런트 손현주씨가 특별초청인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4월11일부터 한 달간 완도 EXPO벨트에서 개최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목포시 부가세 환급 올들어서만 38억

목포시는 25일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국세인 부가가치세 38억1300만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 받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시 세입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운영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물의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해 환급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이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찾아내 3차례에 걸쳐 청구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냈다. 환급받은 주요시설은 지난 2011년까지 준공된 목포북항수산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9곳이다.

특히 시는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상담 등 끈질긴 노력과 목포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같은 성과를 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환급금은 시민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건요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다목적 비가림하우스

생산비 절감·소득증대

신안 농가 '일석이조'

신안지역 농가들이 다목적 비가림 하우스 시설로 생산비 절감 등 소득 증대에 톡톡한 덕을 보았다.

군은 그동안 원예작물, 과수 등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배목적으로 330㎡(100평형) 이상의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65㎡(50평형) 규모의 하우스로 대상을 확대했다.

실제 영농현장에서 벼·고추·양파 등 육묘와, 고추, 마늘 등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50평 규모의 하우스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546동을 설치할 목적으로 현재 380동이 준공됐다.

비가림하우스 농가들은 벼 육묘와 마늘·고추 건조 등에 이를 활용해 생산비 10%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tlee@



남도해양관광열차 타고 보성 오세요. 오는 27일 본격적인 운행을 앞둔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의 시승자들이 24일 보성군 벌교역에서 내려 보성역, 벌교시장 등 벌교 인근 관광지를 둘러봤다. 이날 시승 환영행사에는 정중태 보성군수 등이 직접 찾아 관광객들에게 일일이 관광자원을 설명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정성을 기울였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 해결 '팔 걷었다'

시·대기업, 기술·재정 지원 합의

악취 저감 시설도 연내 설치키로

화양농공단지 악취 민원과 관련 여수시와 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25일 "농공단지 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여수시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비엔씨, 인제화

학, SFC 등 3개 업체의 원청사인 GS칼텍스, LG화학, SFC화학공장(본사)과 기술·재정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대기업 차원의 기술·재정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냈으며, 개선권고 시

한인 내년 2월28일보다 개선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농공단지 내 협력사인 비엔씨의 악취 요인 분석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검토를 통해 최적의 악취 저감 시설을 10월 중 발주해 연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화학과 SFC 화학공장(본사)에서도 각각 농공단지 협력사인 인제화학과 농공단지 내 SFC사업장에서의 악취가 줄어들 수 있도록 RTO시스템(소각시설) 등 악

취 저감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화양농공단지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8월21일 전라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1월 1차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양자 환경복지국장은 "여수산단 원청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악취배출 사업장의 시설개선이 올 연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본적인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화양농공단지 대기배출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정안에 2억3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열기 뜨겁다

진도개 테마파크 1단계 공사 마무리

'나주배 박스같이' 원천 차단

14개 회원조합, 박스 단일화

내년부터 '특품'·'상품' 2가지로 디자인 통일

매년 추석·설 상수기 때 외지 약덕상인들의 원산지 바뀌치기로 고민하던 나주시 '나주배 박스같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주배 박스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배 원예협동조합과 지역 14개 회원조합 등이 참여한 나주배 박스 단일화 협의체가 지난 12일 나주시 주도하에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은 각각각색의 나주배 박스가 유통되면서 소비자 불신 초래, 브랜드 인지도 하락 등은 물론 외지 생산 배를 나주배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주배 박스는 지난 2009

년 4월11일부터 한 달간 완도 EXPO벨트에서 개최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들은 지난 2009년부터 디자인이 통일된 박스에 각 조합별 명칭만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영농조합법인과 대단위 과수원을 보유한 일반농가들은 단일화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와 나주배원예, 14개 회원조합은 영농조합법인과 일반 과수농가를 설득해 내년까지 나주배 박스를 '특품'과 '상품' 등 2가지 디자인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또 박스에는 스마트폰을 이용, 생산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또는 '바코드'와 나주시장이 증명하는 원산지 품질 인증마크도 삽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나주배 원산지 표시를 위한한 유통·판매업자 5명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올해도 유통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ong@



함평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 6개사 제24차 투자협약 체결

함평군은 25일 "박준영 도지사, 안병호 함평군수, 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해보농공단지 입주업체 6곳이 186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 칼라강판 제작, 조정기설비, 전기조명, 자동차 에어컨, 강구조물 제조 기업 등 6개 기업이다.

군은 이번 투자로 인해 135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해보농공단지에 투자한 제조산업은 지역 거인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갖

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에만 22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투자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투자협약이 일자리창출과 큰규모의 투자로 친해진 지역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보농공단지는 산업시설용지 17만3429㎡, 총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돼 조성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광양 자원봉사자 5만명 육박

지난달 47594명 등록...재능나눔·환경운동 등 펼쳐

광양시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지난달 말 현재 4만 7594명을 기록했다.

시는 조만간 5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시 전체 인구 15만 1268명의 31.5%로, 시민 10명중 3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25일 "'복지도시 광양건설'을 위해 나눔과 돌봄의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결과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자와 수혜자를 고려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11년 등록된 600여개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해 봉사단체를 사랑나눔,

시정협력, 재능나눔,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등 5개 영역으로 통합한 것도 이 같은 자원봉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소, 가사 지원 등 단순 봉사활동에서 탈피해 특화된 프로그램인 '이웃과 행복나누기, 지구 할링하기' 등 테마사업을 추진해 17개 단체 1370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자원봉사는 단순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통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시민활동"이라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렵고 힘든 문제도 연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0세 이상 광양시민 1만3000여명이 41만5297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